

민들레 소녀

로버트 F. 영 (Robert F. Young)

언덕 위의 소녀를 보고 마크는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¹를 떠올렸다. 오후의 햇살 아래 민들레색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서 있는 모습, 유행이 지난 흰 드레스가 그녀의 길고 날씬한 다리 주위에 물결치는 광경에서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흡사 과거에서 뛰어나와 현재로 온 것 같았다. 기이하게도 실상은 그 반대였으니 그녀가 뛰어나온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다.

숨가쁘게 언덕을 올라 그녀 뒤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하면 놀라게 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마음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파이프를 꺼내어 채우고 불을 켜고, 손을 오므려 담배에 불이 붙을 때까지 빨아들였다.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늘이 가까운 감각을 느끼면서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을 즐겼다. 하이킹을 더 자주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숲을 가로질러 걸어서 언덕까지 왔는데 지금 숲은 그의 뒷편 훨씬 아래편에 놓여 초가을 단풍으로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다. 숲 너머 작은 호수를 끼고 오두막과

¹Edna St. Vincent Millay (1892–1950). 미국의 시인, 극작가, 여성운동가. 여기서 밀레이를 떠올렸다는 것은 밀레이의 시 *Afternoon on a Hill*을 연상했다는 의미이다.

낚시를 위한 잔교와 보관소가 지어져 있었다. 그의 아내가 갑작스레 배심원으로 소환되어 그는 여름 휴가 중의 짬을 낸 2주간을 혼자 보낼 수밖에 없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바깥이 서늘한 저녁에는 서까래를 엮은 거실의 큰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거나 하였다. 이렇게 이틀을 보낸 후에 그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숲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언덕에 도착하여 올라 소녀를 만났다.

가까워져서 바라본 그녀의 눈은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을 가린 하늘처럼 푸른색이었다. 얼굴은 동그스름하여 젊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다. 살을 에는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혀 그는 바람을 맞는 그 뺨에 손 대어 만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눌러야 했다. 손을 뻗지 않았음에도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마흔 넷이나 먹어서. 그녀는 겨우 스무살 정도일 텐데.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 당황스러워하면서 소리내어 물었다. “경치가 좋지요?”

“아, 네.” 그녀가 돌아서서 팔을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정말 멋져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그렇군요.” 아랫쪽으로 숲이 다시 시작되어 따스한 9월의 색으로 저지대까지 몇 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을 감싸면서 뻗어가다가 교외 경계의 첫번째 전초기지 앞까지 가서 몸을 굽힌다. 멀리 코브 시의 뾰족뾰족한 외양이 안개

로 부드러워져서 마치 중세 성곽같은 모습이 되어 꿈보다 현실감이 덜했다. “당신도 도시에서 왔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지금보다 240년 후의 코브 시에서 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자신의 말을 그가 믿을 거라 기대하지 않지만 믿는 척하면 좋겠다는 뜻인 듯했다. 그도 마주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서기 2201년인가요? 그 때쯤이면 대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은 메갈로폴리스의 일부인데 저기까지 확장되어 있어요” 그녀는 발밑 숲의 꼬트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2040 번가가 사탕단풍나무 숲을 관통해서 지나가요. 저기 메뚜기떼가 보이세요?”

“네, 보이네요.”

“거기가 새 플라자가 들어선 곳이에요. 그곳 슈퍼마켓은 다 돌아 보려면 한나절 걸릴 정도로 큰데요, 아스피린부터 비행차까지 뭐든 살 수 있어요. 너도밤나무 숲 자리 슈퍼마켓 옆에 큰 드레스숍에는 잘나가는 쿠틀리에들의 최신작으로 가득하답니다. 입고 있는 이 드레스도 오늘 아침에 거기서 샀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녀가 입고 있어서 아름다운 거겠지. 그러나 그는 예의바르게 드레스를 보았다. 처음 보는 원단이었는데 그것은 솜사탕과 바다거품과 눈을 합성한 물질 같았다. 기적의 섬유공이 만들어낼

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마찬가지로 어린 여자아이의 허세섞인 말에도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겠군요.”

“네. 아버지가 발명하신 거예요.”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그토록 천진한 안색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에 종종 오나요?”

“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공좌표예요. 가끔 몇 시간이고 여기 서서 바라보고 보고 또 보곤 해요. 그저께는 토끼를 보았어요. 어제는 사슴, 그리고 오늘은 당신.”

마크가 물었다. “그렇지만 시간상 같은 지점으로 항상 돌아간다면 어떻게 어제가 있을 수 있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타임머신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동일한 좌표를 유지하려면 매 24시간마다 재설정해야 해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돌아오는 때가 매번 다른 날인 것이 훨씬 좋거든요.”

“아버지는 같이 안 오나요?”

머리 위로 기러기가 V자 대열로 천천히 날아갔다. 그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병이 들었어요. 오고 싶어하시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해드려요.” 그리고 황급히 덧붙였다. “그러면 실제 오신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간절하게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마음을 몽클하게 했다. “틀림없이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타임머신을 가지는 건 정말 멋지겠군요.”

그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쾌적한 들판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이죠. 23세기에는 쾌적한 풀밭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그는 미소지었다. “20세기에도 그다지 남아 있지 않군요. 여기는 그런 곳 중의 하나라고 해도 되겠네요. 좀더 자주 와야겠어요.”

“근처에 사세요?” 그녀가 물었다.

“3마일 정도 떨어진 오두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휴가중이긴 한데 그다지 휴가같지 않군요. 아내가 배심원으로 불려가서 혼자 와야 했지요. 미룰 수도 없어서 결국 본의 아니게 헨리 소로²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란돌프입니다.”

“저는 줄리예요. 줄리 댄버스.”

이름은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흰 드레스가 그녀에게 어울리듯이, 푸른 하늘이, 언덕과 9월 바람이 그녀에게 어울리듯이. 아마도 숲속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미래로부터 온 것으로 하고 싶다면 그걸로

²Henry David Thoreau(1817-1862). 미국의 철학자. Walden 숲에서 2년 2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였고 그 경험을 *Walden*(1854)으로 출판하였다. 여기서는 숲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좋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가 느낀 감정, 그리고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에게 닥쳐드는 사랑스러움이 전부였다. “줄리, 무슨 일을 하세요? 아직 학교에 다니나요?”

“비서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반 걸음 나서서 예쁘게 피루엣³ 동작을 해보이고는 손을 앞으로 모았다. “비서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중요한 대형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중요한 분들의 말씀을 받아적는 것은 정말로 멋진 거예요. 비서가 되어 드릴까요, 란돌프 씨?”

“그것 좋군요. 내 아내도 전에, 전쟁 전에 제 비서였지요. 우리는 그렇게 만났답니다.” 이런, 이런 얘길 왜 하지?

“비서로서는 훌륭했나요?”

“최고였죠. 그녀를 잃은 것이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녀를 잃었을 때 다른 의미로 그녀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 그녀를 잃었다고 말할 수 없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 란돌프 씨, 이제 돌아가 봐야 하겠어요. 아빠가 제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리실 거예요. 저녁도 차려 드려야 하고.”

“내일 여기 올 건가요?”

³pirouette. 한 발을 축으로 한 바퀴 도는 동작

“아마도요. 이곳에 매일 오고 있거든요. 그럼 안녕히, 란돌프 씨.”

“잘 가요, 줄리.”

그녀가 언덕을 가볍게 뛰어 내려가, 240년 후에 2040번가가 될 사탕단풍나무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웃었다. 정말 매력적인 아이로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토록 숨길 수 없는 경이감과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일 것이다. 그는 이미 이 두 가지를 내다버린 경험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욱 충실히 느낄 수 있었다. 스무살 때 그는 진지한 청년으로서 로스쿨에서 매진하였고 스물네살에는 조그마한 것이기는 해도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고 그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살았다. 아주 완전히는 아니구나. 앤과 결혼했을 때 생계비를 버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던 짧은 중간시기가 있었다. 그 후, 이번에는 훨씬 긴 기간이 된 또다른 중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전쟁 때였다. 이 때는 생계비에 매달리는 것이 약간 남의 일처럼 보였고 때로는 경멸한 만한 행동이었다. 민간인의 삶으로 복귀한 후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긴요해졌는데 거기다 아내뿐 아니라 아들이 생겨 부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줄곧 그는 일에 묻혀 살았다. 다만 매년 4주간의 휴가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여, 그 가운데 2주를 함께 선택한 리조트에서 앤, 제프와 함께 보내고, 제프를 대학에 돌려보내고 난 후 2주 동안을 호숫가 오두막에서

앤과 함께 보냈다. 비록 올해는 남은 2주를 혼자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외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이프의 불은 한참 전에 꺼져 있었지만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바람을 막으려고 깊게 그어 다시 불을 붙이고 언덕을 내려가 오두막 쪽으로 숲을 가로질러 돌아가기 시작했다. 추분이 지나 낮이 상당히 짧아졌다. 해가 벌써 기울어 저녁 습기가 뿌연 공기 속에 퍼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걸었다. 호수에 도착할 즈음에는 해가 졌다. 작지만 깊은 호수였고 나무가 가장자리까지 드리워 있었다. 오두막은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소나무 숲에 세워져 있었고 잔교까지 구불구불한 소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집 뒤로 자갈을 깔아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에 잇대어 있었다. 뒷문 옆에 그의 스테이션 웨건이 서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를 문명세계로 데려다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책을 읽으러 거실로 갔다. 헛간에서 발전기가 웅웅거렸다. 그래도 그마저 없으면 저녁은 현대인의 귀에 젖은 일상적 소리를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이었다. 『미국 시선집』을 잘 챙겨진 벽난로 옆 서가에서 골라내어 자리에 앉아서 「언덕 위의 오후」⁴까지 책장을 넘겼다. 이 애송시를 세 번 읽었다.

⁴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의 시 *Afternoon on a Hill*. 나 이 햇살 아래/
가장 기꺼운 사람/백 송이 꽃을 만지고/하나도 꺾지 않겠네//조용한 눈으로/

읽을 때마다 그의 눈에는 햇살 아래 그녀가 서 있는 모습,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춤추던 모습, 그녀의 드레스가 길고 사랑스러운 다리 주위를 부드러운 눈처럼 물결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무언가가 그의 목에 차올라 목이 죄었다. 삼킬 수조차 없었다.

책을 선반에 되돌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시골풍 포치에 서서 파이프를 채우고 불을 그었다. 앤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단하지만 보드라운 턱. 따스하고 온정적인,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의 편린을 보여주던 눈동자. 가냘프고 부드러운 뺨, 다정한 미소. 이런 특징에 생기있는 밝은 갈색 머리와 큰 키, 나긋나긋한 우아함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이 되었다. 그녀를 떠올릴 때면 언제나 그녀가 나이를 먹지 않는 것에 감탄한다. 책상 앞에 다소곳이 서 있던 그녀를 보았던 예전 어느 아침, 그 때의 사랑스러움이 해를 거듭하는 동안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데 놀라게 된다. 겨우 20년만에 그가 딸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의 상상력 지나친 소녀와의 만남을 이토록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잠시 일탈한 적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다. 감정적 평형이 잠시 무너졌고 그래서 휘청거렸을 뿐이다. 지금 그의 발은 다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고 세상은 정상 궤도로 되돌아왔다.

벼랑과 구름을 바라보고/잔디 위로 드리우는 바람을 보고/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네//마을에 불빛/보여 오기 시작하면/내 불빛 찾아/마을로 내려가리.

그는 파이프를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시트 사이에 들어가 불을 켰다. 곧바로 잠이 찾아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잠이 오기는 했지만 애타는 꿈으로 점철된 선잠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저께는 토끼를 보았어요. 어제는 사슴, 그리고 오늘은 당신.”

둘째 날 오후 그녀는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들레색 머리에 어울리는 작은 푸른색 리본을 달고 있었다. 언덕을 오른 후에 움직이지 않고 잠시 서서 목의 죄임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걸어가서 그녀의 곁에 바람을 맞으며 섰다. 그러나 그녀의 목선과 뺨의 부드러운 곡선을 보자 죄임이 다시 찾아들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안녕하세요. 오실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을 때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참만에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왔지요. 당신도 왔군요.”

“네,” 그녀가 말했다. “기뻐요.”

근처의 돌출 화강암이 벤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파이프를 채우고 불을 붙였다. 연기가 바람에 날렸다. “아버지도 파이프를 태우세요. 불을 붙일 때 당신처럼 손을 오므리시죠.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좀더 해보세요. 당신 이야기기도.”

그녀는 자신이 스물한 살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물리학자이고 2040번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가사를 돌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그 뒤로 그는 자신과 앤, 제프에 대해 말해주었다. 제프에게 언젠가 자신의 일을 돕게할 계획이라는 것, 앤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서 결혼식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는 것, 그 후로도 사진을 전혀 찍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년 여름에 셋이서 함께 한 캠핑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정말 멋진 가족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1961년은 살기 좋은 해가 틀림없어요!”

“타임머신이 있으니 언제라도 이 때로 올 수 있겠군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를 저버릴 생각도 없고, 시간경찰도 고려해야 해서요. 시간여행은 정부지원 역사탐험가에게만 허용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금지되어 있어요.”

“문제없이 해내신 거 같은데요.”

“아버지가 사제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그런 거죠. 시간경찰 모르겠어요.”

“그러면 범법행위가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점에서만, 그들의 시간 개

념에 비추어봤을 때만 그런 거죠. 아버지는 나름의 독자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든지 상관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주제가 아무리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도 더 진행해주기를 원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봐요.”

“우선 공식적인 시간 개념에 대해 말해볼게요.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미래로부터 온 누구도 과거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물리적으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파라독스를 일으키고 이 파라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사건이 개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여행국은 인가받은 요원만이 타임머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경찰을 편성하여 시대이월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어요. 이들은 더 단순한 생활방식을 갈망하여, 역사학자를 가장하고 영구적으로 다른 시대로 귀환하려 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시간의 책은 이미 기록이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전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과거 사건에 참여한다면 그는 그 사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애초부터 그가 사건의 일부라는 간단한 이유에서 파라독스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마크는 파이프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운 분인 듯하군요.”

“틀림없어요!”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녀의 뺨은 더 붉어졌고 눈동자의 푸른빛이 짙어졌다. “아버지가 읽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란돌프 씨, 우리 아파트는 책으로 넘쳐날 것 같아요! 헤겔, 칸트, 흄, 아인슈타인, 뉴턴, 바이츠제커. 저도, 저도 몇 권 읽어봤어요.”

“많이 모으긴 했지만,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내려놓고 바라보았다. “란돌프 씨, 정말 멋져요! 우린 분명 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어진 대화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비록 초월미학, 버클리철학, 상대성이론이 남자와 소녀가 9월의 언덕배기에서 논의하기에, 아무리 남자가 마흔넷이고 소녀가 스물하나라 해도 (그는 곧바로 반성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주제였지만, 다행히도 보상이 있었다. 초월미학에 관한 열띤 토론은 선험적이고 후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 눈망을 속의 미시우주적 성좌도 드러내었다. 버클리를 해부하는 것은 이 선한 주교[=버클리]의 이론의 내재적 약점을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뺨의 홍조를 밝혀내기도 한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대한 고찰은 E 가 mc^2 과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상의 일을 했다. 지식이라는 것이 여성의 매력에 장애물이기는커녕 가치있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애써 앤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다. 그대신 어둠 속에 누워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9월의 언덕배기와 민들레색 머리카락의 소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저께는 토끼를 보았어요. 어제는 사슴, 그리고 오늘은 당신.

다음날 아침 그는 차를 몰고 그 작은 마을로 가서 우체국에서 자신에게 온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놀라지 않았다. 제프는 편지 쓰기를 자신만큼이나 싫어했고 앤은 지금 아마도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일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비서에게 긴급한 일이 아니면 알리지 말라고 해두었더랬다.

그는 이 지역에 댄버스라는 이름의 가족이 살고 있는지를 주름가득한 우체국장에게 물어볼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줄리가 공들여 세워 놓은 믿어주었으면 하는 허구 구조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었다. 비록 그는 그 구조의 타당성을 믿지 않았지만 그걸 허물어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머리색과 같은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또다시 목이 막혀와서 말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첫 순간이 지나자 말이 나오고 괜찮아졌고 그들의 생각은 두 개의 물거품 이는

개울물처럼 흘러나와 오후의 협곡을 즐겁게 나아갔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가 물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가 묻고 싶은 것을 미리 훔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은 숲을 지나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귓전에서 맴돌다가, 포치에서 파이프를 피우며 저녁을 보내고 잠들 때 자장가가 되어주었다.

다음날 오후 그가 언덕을 올랐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실망감이 그를 멍하게 만들었지만 고쳐 생각했다. 늦는 거야, 그게 다야. 금방 올 거야. 화강암 벤치에 앉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땅거미가 숲에서 기어나와 언덕길을 슬금슬금 올라왔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결국 그는 단념했다. 비참한 심정으로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 다음날 오후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낚시는 하기 싫어졌다. 더이상 책을 읽지도 못했다. 이러는 내내 그는 자신을 증오했다. 상사병을 앓는 학생 아이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예쁘장한 얼굴과 예쁜 한 쌍의 다리에 대해 여느 다른 40대처럼 반응하는 자신을. 며칠 전까지만해도 다른 여자는 쳐다본 적도 없었는데, 여기서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 여자를 바라볼 뿐 아니라 사랑에 빠지기까지 했다.

나흘째 날 언덕을 오를 때 그의 안에서 희망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불현듯 되살아났다. 햇빛 아래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번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오지 못했던 이유를 짐작했어야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시작되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기까지 그러지 못했다. “줄리,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그에게 매달려 어깨를 들썩이며 얼굴을 그의 코트에 묻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불현듯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녀의 첫 울음이라는 것을. 경야와 장례기간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가 이제서야 터져나온 것임을.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안았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이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앞이마에 부드럽게 스치고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게 전부였다. “마음이 아프네요, 줄리. 그분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어요. 실험실에서 스트론튬 90 실험을 했을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줄리, 찾을 거예요, 무언가, 누군가를.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당신은 아직 아이예요.”

그녀가 머리를 뒤로 젖혔다. 갑자기 눈물없는 눈을 들어 그에게 향했다. “아이가 아니에요! 나를 아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깜짝 놀라서 그는 그녀를 풀어주고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내 말은……”

그녀의 분노는 갑작스러웠던 것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졌다. “란돌프 씨, 나를 상처입히려는 의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시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알았어요. 약속합니다.”

“이제 가야 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아요.”

“그, 내일 여기 옵니까?”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여름 소나기 뒤 같은 안개가 그녀의 푸른 눈을 반짝이게 했다. “타임머신이 작동을 멈추었어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것—제 것은 한 번 정도 더 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실치 않아요.”

“그래도 오려고 할 거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볼게요. 그리고 란돌프 씨”

“네, 줄리.”

“제가 성공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기록을 위해 말해둡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언덕을 가볍게 뛰어내려가 잠시 후에 사탕단풍나무숲으로 사라졌다. 파이프에 불을 붙일 때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성냥에 손가락을 데었다. 그 뒤로 오두막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침대로 가기까지를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방에서 잠을 깬고 부엌에 가보니 저녁 식사 식기가 배수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까.

그는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끓였다. 아침을 잔교에 나가 낚시하며 마음을 비우고 보냈다. 이후 현실과 직면하게 되겠지 그래도 지금은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충분했다. 몇 시간 후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고장난 타임머신이라 하더라도 그녀를 마을에서 언덕까지 보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곳에 일찍 도착하여 화강암 벤치에 앉아서 그녀가 숲에서 나와 비탈길을 오르기를 기다렸다. 가슴은 고동치고 손은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저께는 토끼를 보았어요. 어제는 사슴. 그리고 오늘은 당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그는 언덕을 내려가 설탕단풍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작은 오솔길은 금방 찾았다. 그 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고 숲을 빠져나오자 마을에 다달았다. 작은 우체국에 들러 우편물을 확인했다. 주름진 우체국장에게서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을 들은 후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불쑥 말했다. “저, 이 근처 어딘가에 댄버스라는 이름의 가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최근에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까?”

“최근 1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휴가가 끝날 때까지 매일 오후 언덕을 찾았지만 마음 속으로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완전히 그로부터 사라졌다. 저녁마다 마을을 배회하면서 그 우체국장이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랐지만 줄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지나치는 사람에게 그녀의 모습을 설명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을 얻었을 뿐이었다.

10월 초에 그는 도시로 돌아왔다. 앤에게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는 듯이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녀는 무엇인가 변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이전에 그를 당혹하게 만들었던 눈동자 속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점점 뚜렷해져 갔다.

그는 일요일 오후마다 차를 몰아서 언덕배기를 찾았다. 숲은 이제 황금빛이 되었고 하늘은 한 달 전보다도 더 푸르러졌다. 몇 시간 동안 화강암 벤치에 앉아서 그녀가 사라진 지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저께는 토끼를 보았어요. 어제는 사슴, 그리고 오늘은 당신.

그러던 어느 11월 중순 비오는 날 밤, 그는 수트케이스 하나를 발견했다. 앤의 것이었다. 그것을 찾아낸 것은 우연이었다. 그녀는 빙고 게임을 하려고 시내로 갔고 그는 집에 혼자 있었다. 두 시간 동안 네 개의 지겨운 티비 프로그램을 보다가 지난 겨울에 넣어두었던 직소 퍼즐을 떠올렸다.

줄리를 잇기 위해 무언가 그게 무엇이든 절실했던 그는 다락에 올라가 그것을 꺼내오려 했다. 쌓여 있는 상자를 뒤지던 중에 선반에서 수트케이스가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부딪쳐 튀면서 갑자기 열렸다.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우려 했다. 결혼 후에 임차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가져온 수트케이스였다. 그녀는 그것을 항상 잠궈두고 그에게 웃으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던 것을 떠올렸다. 잠금쇠는 세월이 지나면서 녹슬어 있었던지 떨어지면서 부서진 것 같았다.

그는 두껍을 닫으려다가, 하얀 드레스 자락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멈췄다. 그 옷감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옷감을 본 것이 그다지 오래지 않은 것 같았다. 솜사탕과 바다거품과 눈을 떠올리는 옷감.

그는 두껍을 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드레스를 들어올렸다. 어깨 부분을 잡고 펼쳤다. 그러자 그것은 부드럽게 내리는 눈처럼 방 안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목안이

죄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수트케이스 안에 넣고 두
경을 닫았다. 그리고 수트케이스를 처마밑 틈새에 수트케이스를
되돌려놓았다. 그저께는 토끼를 보았어요. 어제는 사슴, 그리고
오늘은 당신.

지붕에 비가 후드득 떨어졌다. 목이 조여오고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아졌다. 그는 천천히 다락방 계단을 내려왔다. 나선 계단을 걸어
거실로 내려왔다. 맨틀의 벽시계를 보니 열시 십사분이었다. 몇 분
후면 빙고 버스가 그녀를 모퉁이에 내려주고 그녀는 골목을 걸어
현관문까지 걸어올 것이다. 앤은…… 줄리는, 줄리앤⁵인 걸까?

그녀의 풀네임이 그것이었던가? 아마 그렇겠지. 사람들은 애칭
이나 이명을 지을 때 원래 이름의 일부를 유지하곤 한다. 끝이름은
완전히 바꾸었지만 퍼스트 네임의 일부는 취해도 안전하다고 생
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시간경찰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
말고도 다른 일을 했다. 자신의 사진을 전혀 찍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비서직에 지원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에 가만히 발을 들여놓았던
예전의 그날 그녀는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을까. 낯선 시대에
완전히 혼자, 아버지의 시간 개념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확증도
없고, 그녀를 사랑해줄 그 사람이 20대일 때도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될지 알지 못한 채로.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던 것이다.

⁵Julie와 Anne. Julianne.

20년 세월 동안, 내가 9월의 언덕에 올라서, 햇빛 아래 있는 젊고 사랑스러운 그녀를 보고 또한번 사랑에 빠질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 순간이 그녀의 과거의 일부인 것처럼 나의 미래의 일부인 것을 알았겠지. 그러나,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말해주지 않지?

문득 이해가 됐다.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는 방으로 가서 레인코트를 입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리고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흐르는 것의 일부는 빗물이었고 일부는 눈물이었다. 앤처럼, 줄리처럼, 나이 상관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늙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 그에게는 그녀가, 작은 오피스의 내 자리 앞에 섰을 때, 그와 동시에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 이후로 그의 눈에 단 하루도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는 그녀가 전혀 늙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던 그 소녀가 그에게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가?

그는 길로 나와서 모퉁이 쪽으로 걸었다. 그가 막 도착했을 때 빙고 버스가 다가와서 멈추었다. 그리고 흰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소녀가 내렸다. 목의 걸림은 칼로 베는 듯이 예리해졌고 거의 숨을 내쉴 수가 없었다. 민들레색 머리카락은 이제 더 짙어졌고 소녀스러운 매력은 사라졌지만 부드러운 얼굴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움이

머물고 있었고 길고 날씬한 다리는 황금빛의 9월 햇살 아래에서는 알지 못했던 11월 가로등 창백한 빛 속에서 우아함과 대칭성을 드러냈다.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 속에서 낯익은 두려움,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그 두려움을 보았다. 그의 눈에 그녀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 쪽으로 아무튼 발을 내딛었다. 그가 다가갔을 때 그의 눈은 맑아졌다. 그는 오랜 세월을 건너 그녀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비에 젖은 뺨에 손을 대었다. 그녀가 그것을 깨닫자, 모든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들은 빗속에서 손을 맞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끝.

원래 1961년 4월 1일자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실렸습니다.